

伏羲 次序圖에 입각한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및 배설 과정에 대한 八卦 配屬

김경철*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한의학 연구소

Assignment of the Eight Trigrams for the Process on Intake, Digestion, Excretion of Food, Being Based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

Gyeong Cheol Kim*

Department of diagnost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To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eight trigrams (八卦) for the process on intake, digestion, excretion of food. Being based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provisional namely six entera are assigned eight trigrams(八卦). Eight trigrams(八卦) are attached to the air(GEON 乾), the month(TAE 兌), the stomach(LEE 離), the small intestine(JIN 震), the large intestine(SON 巽), the rectum(GAM 坎), the anus(GAN 艮), the excrements(GON 坤). The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means immutable order naturally. The process of six entera's digestion is also unchangeable in region and program. Therefore we can set up the process of six entera's digestion as the category of observation on the basis of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and then we can arrange eight trigrams(八卦) on the process of six entera's digestion.

Key words : eight trigrams (八卦),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six entera

서론

醫易學은 醫易會通의 연구 방법론으로 周易의 思想과 範疇體系를 이용하여 의학의 이치를 밝히는 분야이다. 특히 八卦를 이용하여 인체의 臟腑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그 主流을 이루고 있다¹⁾. 이는 八卦가 周易의 핵심이고, 臟腑도 韓方 藏象論의 입장에서 인체의 생리활동의 중추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八卦의 인체 배속은 醫家마다 학설이 紛紛하여²⁾ 醫易의 이론 전개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은 임상 활용을 어려움을 끼치고 아울러 후학들의 연구에도 지장이 되고 있다. 의역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은 구체적으로 팔괘 배속의 기본 태도에 해당하는 관찰의 基準과 논의의

範疇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바로 의역회통의 이론 전개에서 八卦의 인체 배속의 원리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한다³⁾.

한편,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그리고 영양 흡수와 배설은 생명 유지의 핵심으로써, 인체 생명활동의 큰 줄기가 되어 後天之氣 生成의 기틀을 이루고 있다. 즉 입에서 항문까지의 경로에 해당하는 이 과정은 인체의 大綱으로써, 이를 통하여 흡수된 영양물질은 각 臟과 각 器함으로 흘러 들어가서 생명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이에 저자는 八卦의 인체 장부 배속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복희 차서도에 입각하여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및 배설 과정에 대한 太山 선생의 八卦 配屬⁴⁾의 考察을 통하여 다소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3-850-8649

· 접수 : 2005/04/01 · 수정 : 2005/04/28 · 채택 : 2005/05/24

1) 백진웅, 장부의 팔괘배속에 관한 연구, p. 173

2) 윤창열, 장부와 팔괘배속에 관한 연구, p. 217

3) 김정규 윤창열, 팔괘의 인체배속과 인단화적인 운용, p. 113

4) 강효원, 태극체질처방전, p. 794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입에서 항문까지의 飲食物의 攝取와 消化 및 排泄 경로인 입,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을 관찰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음식물의 攝取란 결국 하늘과 땅의 기운을 섭취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이 天地人 三才의 一部임을 감안하여, 음식물과 함께 흡입되는 하늘의 공기(天)와 인체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이 땅으로 돌아가는 범위(地)도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周易에서 설명하고 있는 太極에서 陰陽, 四象, 八卦, 六十四卦로 分化되어 나가는 生生之道를 나타내는 伏羲八卦次序圖⁵⁾를 기준으로 八卦를 配屬하였다.

결 과

飲食物의 攝取와 消化 및 排泄 경로인 입,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의 가칭 六腸을 관찰의 범주를 설정하여, 복희 차서도를 기준으로 팔괘를 배속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Table. 1 Being based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 (伏羲次序圖), the assignment of eight trigrams (八卦) on the six entera

八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六腸	공기(하늘)	입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배설물(땅)

고 찰

1. 八卦의 인체 配屬에 대한 기본 태도와 방법 - 관찰의 기준과 논의의 범주 설정 문제

八卦의 인체 장부에 대한 배속은 靈樞 九宮八風論⁶⁾에 기본 원리가 나타난 이후에 諸家の 學說이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중국 西漢의 京房易에서 八卦를 五行에 배치한 장부의 팔괘 배속 이론에 따르는 역대 의가의 추종과 부분적인 비판도 역시 그 의견이 일정하지 못하여⁷⁾ 후학의 연구에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인체 臟腑와 八卦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八卦와 인체 臟腑 배속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五行의 숫자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 장부의 팔괘 배속에 대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하여, 최근 백⁸⁾은 우선 京房易에서 문자의 동일성을 의미의 동일성으로 파악한 오류를 지적하고, 다음으로 九宮八風의 八方과 장부 배속이 八風 침입의 병리 상태에서 성립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성립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또한 여기서 後

天八卦方位를 이용한 이유와 그리고 八方을 매개로 內經의 九宮八風論과 周易의 後天八卦圖가 결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설명의 부족을 문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는 古代와 近代의 諸家學說에서 八卦와 장부 배속의 기본이 되는 八卦와 五行의 배속 원리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의 부족과 장부 배속 결과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분석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역시 五臟과 六腑를 혼잡하여 八卦에 배속하고자 함으로써⁹⁾, 인체 臟腑와 八卦 및 五行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八卦의 인체 배속에서 인체의 五臟과 六腑, 經絡 등을 구분하는 입장을 가지고 인체와 八卦 배속을 연구하여야 무리가 없으며, 다른 신체 부분의 八卦 배속도 마찬가지로 제안하고 싶다. 그 이유로 五臟은 宇宙 五種力에 相應하는 인체의 五種機能의 대표격으로 藏精氣而不瀉하는 작용을 하며, 六腑는 五臟과는 달리 음식물의 소화와 영양흡수에 관여하여 傳化物而不藏하는 작용을 하며, 經絡은 자연 기후 현상에 적응하는 체계로서 身體 內외의 연계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작용을 함으로써¹⁰⁾, 생명현상 발현에서 서로 간에 작용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비록 五臟과 六腑, 經絡이 인체의 생명현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로 다른 範疇의 類別로 구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는 한의학 특유의 전일적이고 통일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무반사적으로 항상 전체를 관찰의 영역으로 삼는 잘못을 극복해야만 인체의 八卦 배속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팔괘가 속하는 음양론은 상대적인 차별상을 발현하는 물질세계의 연구방법론이기 때문이다.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차별상의 물질세계의 관찰 대상은 관찰의 입장에 따라 음양의 판단이 다르게 되므로, 그 관찰의 기준과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된다. 이런 陰陽의 屬性을 구체화하여 관찰하고 설명하는 태도와 연구방법은 이미 尹이 主唱하였던¹¹⁾ 바이기도 하다. 물론 음양론은 태극의 절대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작용처는 변화하는 물질세계에서 관찰 대상의 변화하는 상대성을 음양으로 관찰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음양은 불가능하게 되며 음양론의 관찰은 어떤 기준과 어떤 범주의 대상을 보다 더 陰의으로 또는 보다 더 陽의으로 설명 또는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八卦의 인체 配屬에 대한 연구도 관찰하고자 하는 기준과 논의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八卦의 인체 장부 배속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복희차서도를 기준으로 인체의 소화과정의 범주를 고찰하면서 팔괘를 배속하고자 한다.

2. 복희 차서도에 입각한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에 대한 八卦 取象

1) 복희 차서도를 기준으로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의 범주를 설정함

인체 생명 유지는 코의 공기 흡입과 입의 음식물 섭취로 이

5)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周易(全), 明文堂, p. 5

6)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pp. 328-330

7) 윤창열, 앞의 논문, pp. 217-219

8) 백진웅, 앞의 논문, pp. 173-177

9) 백진웅, 앞의 논문, pp. 177-186

10) 백진웅, 앞의 논문, pp. 186-196

11) 김광중, 김원희,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 pp. 26-29

12)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pp. 11-65

루어진다. 이 과정은 인체 상부인 얼굴의 코와 입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통로로 내려가면서 입과 더불어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입에서 항문까지의 가칭 六腸은 음식물의 섭취, 소화, 영양 흡수, 배설이라는 소화 과정의 경로라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므로 음양론 관찰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同類의 範疇 또는 部門에 속하게 된다.

한편, 복희 차서도는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괘, 육십사괘로 분화되어 나가는 生生之道를 나타내고 있으므로¹³⁾ 次序圖라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불변의 순서, 성질, 속성을 가지는 대상을 관찰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인체의 입에서 항문까지의 경로는 하나의 소화 경로로써 가칭 六腸이 되어 타고난 부위의 순서와 기능을 가지고 불변의 속성으로 그 역할을 각각 담당하므로 복희 차서도의 기준과 순서로 팔괘 배속이 가능하게 된다.

가칭 六腸은 內經에서 말하는 六腑와는 膽, 膀胱, 三焦의 배속 차이가 되는데, 膀胱은 소화과정의 기관이 아니며 三焦는 인체 혈관계의 작용을 하고 膽은 奇恒之府로써¹⁴⁾ 순전한 소화 과정으로만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칭 六腸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차서도로 살펴본 소화 과정에 대한 八卦 배속

大綱은 큰 줄기, 그물, 밧줄을 말하는데, 天地 自然은 乾天으로 大綱을 삼는다. 인체에서 대강은 무엇인가. 바로 입구멍에서 똥구멍까지이다¹⁵⁾. 그 이유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소화와 영양의 흡수는 人體의 大綱으로써, 입,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등의 가칭 六腸을 통한 경로로 소화 배설되고 그 영양 물질은 五臟과 각 기관에 보내져서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사람은 코로 공기를 흡입하고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코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一乾天에 해당한다. 우리는 코로 하늘의 공기를 흡입하며 입으로 음식을 저작하면서 함께 삼킨다. 코로 흡입한 공기는 호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섭취한 음식물의 저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도와 식도의 경계에 후두개가 있는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공기와 음식의 혼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후두개는 정말 잘못 만들어진 구조와 기능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할 것이다. 易學적으로 우리는 하늘 乾天의 공기와 地坤에서 비롯하는 음식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天地自然의 氣運을 인체에 구현하게 된다. 이처럼 三才중의 하나인 인간은 天乾의 공기와 地坤의 음식물을 흡수하므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인체의 대강을 이루게 된다.

입(口)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구멍으로써,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입속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다. 입에 들어간 음식은 공기와 섞여 이빨의 저작운동과 혀의 交媾작용으로 마구 쪼개지면서 뒤섞이게 되므로 음식물은 熱 氣運이 생기며 쓴 맛(苦臭味)의 상태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⁶⁾. 그 형상을 八卦로 取象하면 二兌澤에 해당한다.

위장은 음식이 혼합되어 相交되고 胃酸이 분비되어 음식을

소화한다. 위장은 그 생김새가 廣大而包容하여¹⁷⁾ 마치 주머니 형태의 항아리로 醱酵 기능을 발현하게 되므로, 그 형상을 팔괘로 취상하면 三離火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장에서 음식물이 혼합되어 뒤섞이는 상태는 마치 자연에서 바람(風 氣運)이 불어 넘쳐음이 교구하듯이 하게되며, 음식물은 酸臭味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⁸⁾.

小腸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녹여내어 영양을 흡수한다. 그래서 小腸은 영양소의 집합 역할을 하므로 소곱창 등의 소장 자체의 맛은 구시고 맛있다. 소장은 강한 연동 운동을 하므로 八卦로 取象하면 四震雷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하기 쉬운 죽과 같은 양상으로 만드므로 그 用은 녹여내는 녹일 燥 氣運이며, 음식물은 辛臭味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⁹⁾. 大腸은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의 상태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함으로써 大便을 만들어내므로 八卦의 選風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작용은 견고해진 金 氣運이며, 辛味로 조화롭게 나타난다²⁰⁾. 直腸은 물을 흡수하고 다스려 腎臟으로 보내며 平準하게 하고 和하게해서 대변을 만들어, 신체 밖으로 대변을 보내는 준비를 하므로 직장은 六坎水로 取象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작용은 水 氣運에 比肩이며, 음식물은 鹹味로 조화롭게 변화하게 된다²¹⁾. 肛門은 괄약근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여 대변을 자르고 결단하여 땅으로 배출하므로, 항문은 八卦의 七艮山에 配屬 가능하며, 그 작용은 火 氣運에 比肩된다.

대변은 흙으로 돌아가므로 八卦의 八坤地에 해당한다. 결국 인체가 생명유지에 사용한 天地의 氣運에서 내쉬는 공기는 하늘로 날아가고(乾), 음식물의 찌꺼기인 똥은 땅으로 돌아간다(坤)²²⁾. 이처럼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의 하나의 통로인 가칭 六腸을 통하여 소화 흡수된 영양물질은 각 臟器로 배분되어 생명현상이 五臟과 각 器官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론

八卦의 人體 配屬에는 관찰의 基準과 논의의 範疇가 설정되어야 한다. 伏羲次序圖의 基準으로 人體 消化過程을 論議 範疇로 설정하여 八卦를 배속한 결과, 복희차서도에 입각한 음식물의 섭취, 소화, 영양 흡수, 배설 과정에 대한 팔괘 배속은 차서도의 순서에 따라서 天의 空氣에 乾을, 口에 兌를, 胃腸에 離를, 小腸에 震을, 大腸에 巽을, 直腸에 坎을, 肛門에 艮을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는 배설물에 坤을 배속 가능하였다.

참고문헌

1. 강호원. 태극체질처방전, 서울, 한가람전산, 2000.
2. 강호원. 우주양음조화탈해, 서울, 광일출판사, 1991.
3. 김광중, 김완희.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중사, 1996.

17) 이재미, 동의수세보원 장부론

18)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19)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0)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1)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2)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13) 강호원, 우주양음조화탈해, p. 11

14) 김광중 김완희, 앞의 책, pp. 283-304

15) 강호원, 태극체질처방전, p. 794

16)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4. 김혁제 校關. 원본집주주역(전), 서울, 명문당, 1978.
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영인본.
6.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7. 홍원식. 정교환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8. 김정규, 윤창열. 팔괘의 인체배속과 진단학적인 운용, 대한원
전의학회지, 12권2호, 1999.
9. 백진웅. 장부의 팔괘 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7권1호, 2004.
10. 윤창열. 장부와 팔괘배합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2권2호, 1999.